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수준 연구

정혜영*·오윤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과**

A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Female Teachers

Jeong, Hye-Young*·Oh, Yoon-Ja**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female teachers working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and Seoul.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12.0 including frequencies, one-way ANOVA, Duncan-test.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y scored average 3.23 on a five-point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 which meant they were positive about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with the background variables considered, marital status and subjective standard of life resulted in significant differences. Those who answered their subjective standard of life were high scored the highest point on the scale. Third, with the background variables considered, age, subjective standard of life and happiness, family relation and psychological health were shown to affect the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 기혼여교사(married female teacher),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생활만족도(life-satisfaction), 우울(depression)

1) 교신저자: Oh yoon-ja,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The Republic of Korea.

Tel: 02-961-0207 E-mail: yoonja@khu.ac.kr.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의 일부임.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직장과 가정의 일을 함께 수행해야하는 여교사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이중문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중할 뿐 아니라 교직수행 역할과 가정내 역할 어느 것도 만족하기 어려운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직업을 가진 기혼 여성들은 자기 속에 내재하는 자아정체감의 혼란,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와 실제 수행 간에 많은 갈등을 경험(장혜경·김영란, 1998)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 갈등을 경험하면서도 다양한 동기들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 취업여성은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가족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높게 인식(김명자, 1981)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및 부부역할을 드러나지 않은 채로 강요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기혼 취업여성과 관련하여 개인 차원의 건강성 유지와 향상을 통하여 전체 가족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위한 상담과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혼 취업여성 중 여교사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신념 및 가치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개인적 품성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간접적인 교육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가족구조, 성역할 가치관 등에 있어서의 일련의 변화로 남성 및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가족역할 참여가 양성평등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가사노동과 가족내 다양한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는 가족내 개인으로서의 심리적 복지에 위협받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 교육을 위한 전문가의 역량을 위해서 높아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여교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져 왔으나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기혼 여교사가 가진 인적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관련 요인으로서 여교사의 개인적 경험이 되는 심리적 특성 내지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보다 중립적이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띠는 심리적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심리적 복지란 전반적인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험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며 개인의 삶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주로 측정되고 있다. 취업 여성인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국내의 선행 연구들 또한 부양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부양 대상도 노인에만 한정된 경향을 보여 여교사에 관한 심층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연구문제

최근 들어 교직이 점차 여성화됨에 따라 기혼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반면 여교사 자신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교사를 개인 및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심리적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수준의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기혼 여교사의 특성

전체 교사에 대한 여교사의 비율은 2006년 현재 초등학교 경우 75%, 중학교 경우 5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07).

대부분의 기혼 여성들은 가족내에서 중간세대로서 윗세대인 부모와 아랫세대인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게 된다. 기혼 여교사는 가정내 역할을 포함하여 직업에서 주어지는 과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기혼 여교사는 가정적 역할수행과 직업적 역할수행을 병행해 나감으로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겪게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자원을 가정 안과 밖에서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기혼 여교사가 가정적 역할수행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남편과 다른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가정적 후원이 큰 영향을 준 바 있다(반여기, 1996).

여교사들이 교직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여교사들이 위축되고 교직에 대한 전망과 자신의 발전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의 질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중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질은 교육내용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데 이는 결국 교사에 의해 교육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여교사의 심리적인 상태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같은 개인적인 지표들이 생활의 질이나 심리적 복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Bubolz & Lee, 1991). 심리적 복지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긍정적인 측면의 생활만족도와 부정적 측면의 우울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주관적 지표들이 인간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장재정(1987)은 심리적 복지가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의 경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심리적 복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삶의 질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박경태 199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삶의 질에 대한 지표가 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에 한정되는 경향이었으나 점차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을 중시하며 삶의 질과 심리적 복지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될 때는 삶의 질과 심리적 복지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는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과 같은 용어로도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연화, 이정우 2003).

한편 심리적 복지에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다. 그 하나는 우울, 분노, 적대감, 공포, 술과 약물 남용, 심리적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역기능을 연구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향은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 즉 건강, 긍정적 정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다(Marks, 1996).

심리적 복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을 정서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 등의 긍정적 측면을 평가한 연구(김태현의 1999; 신기영, 1999; 이희정·이숙현, 1995; 홍성례, 2006), 하위영역을 목적감, 통제감, 자긍심, 성숙감으로 측정한 연구(김경민, 2004), 우울이나 불안 등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

한 연구(원용희, 1995)가 있다.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평가한 연구로는 생활만족도와 우울(강인·최혜경, 1998; 고인순, 2001; 이선미, 2001, 이경희, 2003),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을 포함한 연구(신기영 외, 1997), 행복감과 우울감 연구(박수정, 1992; 김태현·김양호, 2003)가 있다.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복지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심리적 안녕감(김순기(2001), 긍정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에서 우울과 불안을 포함시키고 있다(김명희·최연실, 2007; 장재정, 1987; 조옥희, 2004; 진미정, 1993). 따라서 최근에 심리적 복지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Bradburn(1969)은 긍정적인 복지(positive well-being)와 부정적인 복지(negative well-being)로 분류한 이차원의 심리적 복지 척도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긍정적 차원과 부정적 차원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긍정적 정서의 평균 수준은 부정적 정서의 평균수준을 예견하지 않는다고 제시(신기영, 1999; 재인용)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두 차원은 항상 존재하며 긍정적 차원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정적 차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때 복지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Diener, 1984).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취업주부는 생활만족도가 높으며(고정자·김갑숙, 1997; 조희금, 1999; 재인용) 우울증은 적게 경험함으로(Saenz, Goudy & White, 1984) 심리적 복지가 높다고 보고된 반면 또다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가 낮다고 언급한 바 있다.(박미령, 1988; 이형실, 2001).

결론적으로 심리적 복지는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등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이차원적 분류를 이용해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의 평가를 포함한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이경희, 2003; 이선미, 2001; 조옥희, 2004)에 기초하여

심리적 복지는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생활만족도와 우울이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되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생활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에서는 우울을 그 하위 영역으로 선택하여 분석하도록 하며 생활만족도 점수가 높거나 우울 점수가 낮을 경우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3.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여성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일하는 여성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가정역할 외에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기혼 취업여성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역할 갈등을 포함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적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McCubbin & Dahl(1986)은 기혼 여성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지나친 가정지향적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가족의 역할수행, 다양한 사회관계망과의 유대관계 없이 가족관계 내에만 몰입된 경우에 우울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외의 역할을 부가해 주는 취업은 기혼 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주부들이 비취업 주부들보다 더 많은 역할갈등과 역할부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복지는 더 낮지 않다고 보고하였다(Coverman, 1989). 진미정(2003)은 취업이 가족수입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회에 연결되는 통로가 되며 사회관계망을 넓히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울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김현화, 1992; 박경숙, 1993)에서는 취업 여부에 따른 복지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명자(1981)는 연구에서 취업주부들이 비취업 주부들에 비해 위기감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하였고 또한 취업이 기혼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혼 취업 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높게 한다고 하였다(신기영, 1999).

한편, 여교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스

트레스 관련(김순복, 2002; 박철순, 2001; 이연화, 2002), 직무만족도 관련(서금자, 2001; 홍계옥, 2000), 승진욕구 관련(김춘자, 2000, 이양옥, 2004) 연구에 치우쳐 왔다. 인간생활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질(quality)'과 관련되어가는 경향을 통해 볼 때 앞으로 교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교사가 그들은 누구이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교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장려하며 교사로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심리적 복지도 아울러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 소재 공립초등학교의 기혼 여교사를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으며 질문지를 사용하여 방문조사하였다. 초등교사가 매우 높은 수준의 다중역할에 노출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시기는 2004년 10월 5일부터 15일에 이루어졌다. 질문지는 총 400명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으며 373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심리적 복지 척도는 생활만족도와 우울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Olson과 Barner(1982)의 Quality of Life, 김오남(1998), 이선미(2001), 김혜신(2003)의 연구를 참고로 일상생활만족, 결혼생활만족, 자녀와의 관계, 경제상태만족, 여가만족, 현재 나의 위치와 역할만족, 친·인척 관계만족 등 10개 문항을 5점 리커트형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수정·보완한 김혜신(2003)의 것을 사용하였다. CES-D 척도는 심리적 우울감에 대한 측정도구로서 본 연구는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우울과 관련된 10개 문항을 5점 리커트형으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Cronbach' α)는 .78로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78이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기혼여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의 경우 40-49세가 35.3%로 가장 많고, 교직 경력은 11-20년이 29.3%, 10년 이하가 34.7%, 21년 이상이 29.3%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29.6%, 결혼상태는 초혼의 비율이 93.7%였다. 결혼 지속년수는 21년 이상이 24.1%를

비롯하여 5년 이하(21.9%), 11-15년(21.1%), 16-20년(16.7%), 6-10년(16.2%)로 나타났다. 첫 자녀의 연령은 7세 이하 29.2%, 가사조력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72.4%로 가장 많았다. 기혼 여교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활수준은 중류가 79.6%로 많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원 수는 4명이 5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73.3%로 가장 많았다.

2. 기혼여교사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

<표 1> 기혼여교사 심리적 복지 전체의 일반적 경향

(n=373)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	3.82	0.54
	우울	2.64	0.70
전체 심리적 복지		3.23	0.34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하위영역 중 생활만족도에 대한 경향성은 <표 2>와 같다. 또한 기혼여교사는 일반적으로 자녀관계를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생활의 행복, 친정부모, 형제자매 관계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혼여교사는 원가족 및 생식가

족내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3>을 통해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하위영역 중 우울 경향성을 살펴보면 일이 귀찮아질 때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기혼여교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매우 낮았고, 반면 일이 귀찮게 느껴지는 경우에 우울 경향성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표 2> 기혼여교사의 생활만족도 경향성

(n=373)

내 용	평균 (표준편차)
1. 나의 일상생활은 대체로 만족스럽다.	3.84(0.63)
2. 나의 가정생활은 행복하다.	4.05(0.68)
3. 나는 나의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3.93(0.81)
4. 나는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4.07(0.71)
5. 나는 직장생활에 만족한다.	3.94(0.68)
6. 나는 나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만족한다.	3.62(0.78)
7. 나는 나의 위치와 역할에 만족한다.	3.86(0.72)
8. 나는 친정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94(0.77)
9. 나는 시부모나 시 형제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3.60(0.88)
10. 나는 나의 여가활동에 만족한다.	3.37(0.92)
생활 만족도 전체	3.81(0.54)

<표 3> 기혼여교사의 우울 경향성

(n=373)

내 용	평균 (표준편차)
11. 나는 요즘쯤 보통 때는 성가시지 않았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3.09(0.90)
12. 나는 근래에 들어 식욕이 떨어졌다.	2.51(0.97)
13. 가족이나 친구들이 곁에 있어도 우울할 때가 있다.	2.68(0.95)
14.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념하지 못할 때가 있다.	2.72(0.90)
15.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이 들곤 한다.	2.76(0.93)
16. 나의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2.65(0.91)
17.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2.36(0.94)
18. 나는 내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편이다.	2.59(0.98)
19. 나는 옛날보다 말수가 줄었다.	2.45(0.99)
20. 할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2.65(0.97)
우울 전체	2.64(0.70)

〈표 4〉 기혼여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차이

(n=373)

변 인	구 분 (N)	심리적 복지 하위 영역				
		생활 만족도		우 울		
		평균(S.D.)	F (Duncan)	평균(S.D)	F (Duncan)	
연령	29세 이하 (42)	3.87(.47)	0.61(n.s.)	2.53(.54)	1.86(n.s.)	
	30-39세 (124)	3.79(.51)		2.66(.66)		
	40-49세 (131)	3.78(.57)		2.57(.70)		
	50세 이상 (74)	3.87(.56)		2.79(.81)		
교직경력	10년 이하 (129)	3.82(.54)	2.51(n.s.)	2.57(.65)	1.09(n.s.)	
	11-20년 (134)	3.74(.53)		2.69(.73)		
	21년 이상 (109)	3.89(.54)		2.67(.79)		
종교	기독교 (110)	3.87(.58)	1.47(n.s.)	2.52(.70)	3.86** AB	
	불교 (45)	3.73(.53)		2.87(.68)		A
	천주교 (67)	3.90(.54)		2.54(.67)		AB
	종교 없음 (138)	3.75(.51)		2.74(.69)		A
	기타 (12)	3.92(.55)		2.27(.67)		B
결혼상태	초혼 (344)	3.82(.55)	1.79(n.s.)	2.62(.69)	2.63* AB	
	독신 (8)	3.66(.35)		2.45(.58)		B
	재혼 (6)	3.35(.34)		2.92(.37)		AB
	기타 (9)	3.76(.47)		3.20(.79)		A
결혼 지속년수	5년 이하 (80)	3.82(.53)	1.03(n.s.)	2.62(.66)	0.45(n.s.)	
	6-10년 (59)	3.79(.44)		2.62(.62)		
	11-15년 (77)	3.80(.54)		2.64(.70)		
	16-20년 (61)	3.74(.59)		2.58(.70)		
	21년 이상 (88)	3.91(.58)		2.73(.82)		
첫자녀 연령	7세 이하 (101)	3.78(.48)	1.08(n.s.)	2.65(.63)	2.01(n.s.)	
	8-13세 (77)	3.71(.57)		2.75(.63)		
	14-19세 (78)	3.85(.54)		2.49(.69)		
	20세이상 (90)	3.89(.58)		2.71(.84)		
가사 조력자 유무	없다 (267)	3.80(.54)	0.46(n.s.)	2.66(.69)	0.68(n.s.)	
	고용인 (23)	3.81(.65)		2.61(.77)		
	시어머니 (41)	3.79(.61)		2.73(.79)		
	친정어머니(29)	3.94(.45)		2.48(.59)		
	친척, 기타(9)	3.90(.48)		2.48(.70)		
주관적 생활수준	상 (57)	4.26(.48)	28.75*** A	2.36(.94)	6.43** B	
	중 (297)	3.76(.50)		B		A
	하 (19)	3.36(.58)		C		A
가족원수	2명 이하 (34)	3.88(.46)	0.49(n.s.)	2.45(.59)	2.09(n.s.)	
	3명 (88)	3.87(.54)		2.55(.69)		
	4명 (188)	3.79(.56)		2.67(.71)		
	5명이상 (59)	3.79(.52)		2.77(.74)		
가족형태	부부가족 (34)	3.90(.54)	0.18(n.s.)	2.53(.73)	0.32(n.s.)	
	핵가족 (266)	3.82(.54)		2.66(.69)		
	확대가족 (55)	3.85(.55)		2.63(.78)		
	기타 (8)	3.84(.59)		2.63(.45)		

*p <.05 **p <.01 ***p <.001.

〈표 5〉 기혼여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전체 심리적인 복지 차이

(n=373)

변 인	구 분 (N)	심리적 복지 전체	
		평균(S.D.)	F (Duncan)
연령	29세 이하 (42)	3.23(.30)	2.65(n.s.)
	30-39세 (124)	3.18(.31)	
	40-49세 (131)	3.32(.47)	
	50세 이상 (74)		
교직경력	10년 이하 (129)	3.20(.27)	1.60(n.s.)
	11-20년 (134)	3.21(.35)	
	21년 이상 (109)	3.27(.40)	
종교	기독교 (110)	3.19(.31)	1.43(n.s.)
	불교 (45)	3.30(.38)	
	천주교 (67)	3.22(.34)	
	종교 없음 (138)	3.26(.36)	
	기타 (12)	3.09(.26)	
결혼상태	초혼 (344)	3.22(.33)	2.60* AB B B A
	독신 (8)	3.05(.18)	
	재혼 (6)	3.13(.29)	
	기타 (9)	3.47(.40)	
결혼 지속년수	5년 이하 (80)	3.21(.29)	1.69(n.s.)
	6-10년 (59)	3.22(.21)	
	11-15년 (77)	3.22(.33)	
	16-20년 (61)	3.16(.27)	
	21년 이상 (88)	3.30(.47)	
첫자녀 연령	7세 이하 (101)	3.22(.27)	1.72(n.s.)
	8-13세 (77)	3.23(.30)	
	14-19세 (78)	3.17(.28)	
	20세이상 (90)	3.29(.48)	
가사 조력자 유무	없다 (267)	3.22(.33)	0.13(n.s.)
	고용인 (23)	3.26(.32)	
	시어머니 (41)	3.25(.40)	
	친정어머니(29)	3.20(.35)	
	친척, 기타(9)	3.22(.19)	
주관적 생활수준	상 (57)	3.33(.47)	3.01* A AB B
	중 (297)	3.21(.32)	
	하 (19)	3.14(.27)	
가족원수	2명 이하 (34)	3.14(.21)	0.81(n.s.)
	3명 (88)	3.21(.30)	
	4명 (188)	3.23(.36)	
	5명이상 (59)	3.27(.39)	
가족형태	부부가족 (34)	3.21(.42)	0.03(n.s.)
	핵가족 (266)	3.24(.34)	
	확대가족 (55)	3.24(.38)	
	기타 (8)	3.24(.36)	

*p <.05 **p <.01 ***p <.001 n.s.no significant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의 전체적인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활에 만족하고 우울 경향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서 기혼여교사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1)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 차이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는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 및 사후검증(Duncan검증)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하위영역 차이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라서만, 우울은 종교, 결혼상태,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복지는 기혼여교사의 종교, 결혼 상태, 주관적으로 지각한 생활수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혼여교사의 결혼상태에 따라(F=2.60, P<0.05) 차이가 있었는데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평균 3.47) 심리적 복지가 가장 높았으며 초혼(평균 3.22), 재혼(평균 3.13), 독신(평균 3.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평균 3.33)가 가장 높았고, ‘중’(평균 3.21), ‘하’(평균 3.14)라고 응답한 순으로 나타났다.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는 결혼상태와 주관적으로 지각한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의 분포가 3.05에서 3.47로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배경변인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배경변인에 따라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어

떻게 영향을 받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하위영역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기초하여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별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에 있어서는 생활수준, 가족관계·심리적인 건강성, 주관적 행복감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있어서 연령, 가족관계·심리적인 건강성, 주관적 행복감이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요인들은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에 있어서 생활만족도를 45%, 우울을 19% 설명하고 있었다.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기혼여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복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결과에서 나타난 결론과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교사의 전체 심리적 복지 정도는 5점 척도에서 3.23으로 대체적으로 심리적 복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 중 생활만족도는 3.82로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나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울은 2.64로 낮게 나타나 기혼여교사의 건강성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만족도 영역에서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 행복한 가정생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울 영역에서는 귀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다는 경향이 높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혼여교사는 심리 정서적으로 원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혼 취업여성에서 나타난 위기적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기영·옥선화(1997)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주부의 생활만족도의 평균이 3.34, 우울의 평균이 3.01로 나타나 기혼여교사는 중년기 주부에 비해 생활만족도는 다소 높게 우울은 낮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김혜신, 2003)와 비교해 보면 기혼여교사가 지각한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중년기 기혼 취업 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조옥

회(2004)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가 3.24, 우울은 2.92로 나타나 중년기 기혼 취업 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는 다른 직종의 취업 여성에 비해 생활만족도는 높고 우울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조옥희(2004)는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때 갈등이 줄어들고 심리적 복지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가족관련 내용에 있어서는 배경변인으로서 주관적 측면만을 다루었으므로 표준화된 측정도구에 기초하여 부부의사소통, 결혼 적응, 역할수행, 부부친밀감 등을 살펴볼 수 있겠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상태,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상태의 경우에는 유형별 표본수의 차이가 큼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주관적 생활수준이 상이라고 지각한 경우에 심리적 복지가 가장 높았다. 이기영

(1984)의 연구에서도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결과 생활 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생활수준 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정우·박은아, 1995). 또한 중년기 취업여성의 학력, 수입, 직업, 자아존중감, 성역할 태도, 건강은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중요한 변인임을 지적한 반면, 여가를 거의 누리지 않고 있는 집단에서는 우울이 높은 것(조옥희, 2004)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생활이 안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문화 및 여가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개인적 차원의 여유 그리고 관계적 차원이 향상될 가능성이 예측될 수 있다. 따라서 기혼여교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탄력근무 등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배경변인 중 연령, 생활수준, 가족관계·심리적인 건강성, 주관적 행복감이 심리적 복지에 주요 영향요인으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 하위영역별 영향 정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F값	p값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p값	F값	p값	
	B	표준오차	베타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30	0.32		7.23	0.000			4.45	0.51		8.80	0.000			
연령	0.01	0.01	0.09	0.83	0.405			-0.02	0.01	-0.21	-1.65	0.100*			
경력	0.00	0.00	-0.01	-0.16	0.870			0.01	0.01	0.13	1.61	0.109			
결혼년수	0.00	0.01	0.01	0.10	0.922			0.01	0.01	0.10	0.60	0.552			
첫자녀나이	0.00	0.01	0.02	0.15	0.883	33.751	0.000***	0.00	0.01	-0.03	-0.22	0.826	9.833	0.000***	
생활수준	-0.18	0.05	-0.17	-3.80	0.000***			0.03	0.07	0.02	0.37	0.715			
가족원수	-0.02	0.03	-0.03	-0.62	0.535			0.06	0.04	0.08	1.55	0.122			
가족관계, 심리적인 건강성	0.17	0.04	0.23	4.52	0.000***			-0.17	0.06	-0.18	-2.90	0.004***			
행복감	0.30	0.04	0.44	8.57	0.000***			-0.26	0.06	-0.28	-4.55	0.000***			
종속변수: 생활만족도, R ² =0.45								종속변수: 우울, R ² =0.19							

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생활만족도를 더 많이 설명하고 있었다. 연령 외에는 기혼여교사가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변인들로서 주관적 만족 욕구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진 또는 자격관련의 교육과정을 핵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교사연수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가족관계적이고 심리정서적인 건강성, 주관적인 행복 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의 교사연수에 도입하므로써 기혼여교사의 개인적인 안정을 확대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통하여 청소년교육의 건전한 모델로의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초등 기혼 여교사 및 심리적 복지만을 초점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경향성 및 이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혼여교사의 주관적 만족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를 살펴보는 데 있어 질적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또한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환경에서 근무 시간, 보직 여부 등 직장내 다른 변인, 사회 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이 제외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다양한 직종 및 다차원적 요인들을 함께 연구하거나 또는 일반 전업주부와 동시 표집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취업 여성의 복지 또는 교육관련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기혼여교사를 대상으로 심리교육,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인·최혜경(1998). 여성의 배우자사별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개인내적 요인들의 중재적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6(4), 95-107.
고인순(2001). **고3 수험생어머니의 스트레스인지 및 대처행동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정자·김갑숙(1997).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11.
김경민(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자(1981) 주부의 취업 유무에 따른 가정 내 역할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69-81.
김명희·최연실(200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의사소통과 부친밀감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23.
김수진(1989) **여성의 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기(2001).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순복(2002) **초등 기혼 여교사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경영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연화(2002) **도시 부부 생활 예절 수행, 가족체계 역동성, 심리적 복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화·이정우(2003).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 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18.
김영희(1997) **중년기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요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예순(1999).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Ⅱ. **한국노년학**, 19(1), 61-81.
김태현·김양호(2003). 중년 남성의 남성역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김춘자(2000). **초등학교 여교사의 승진기회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신(2003)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화(1992). **성격특성에 따른 중년기의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

- 가정학회지, 31(1), 121-135.
- 박미령(1988).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연구-성 역할태도와 주관적자원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철순(2001). **초등학교 여교사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대처 방법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여기(1996). **기혼 여교사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금자(2001). **초등학교 여교사의 교직관과 직무만족도와 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기영(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 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기영·옥선화(1997). **중년 주부의 가족역할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원용희(1995). **동, 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9(1), 61-81.
- 윤성은(2002). **부양지원 경험의 보상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3). **이혼한 한부모가 지각한 부모역할 보상과 비용 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 이상림(2001). **세대간 교환 관계가 중년층의 부양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2002). **노년기 부부의 갈등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화(2002). **초등학교 여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박은아(1995).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치성향, 가정관리 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아세아 여성연구**, 34, 65-100.
- 이형실(2001). **기혼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23.
- 이희정·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장재정(1987). **중년여성의 성역할정체감과 심리적 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55, 151-178.
-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효정(2003). **생태학적 가족복지 모형의 적용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심리적 복지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2), 107-117.
- 전효정(2007). **생태학적 가족복지모형을 적용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5(5), 121-133.
- 조옥희(2004).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역할갈등, 대처행동, 및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8.
- 진미정(1993).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미정(2003).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과 우울증세간의 인과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7), 169-184.
- 한민아(2002). **세대간 지원교환 관계와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2000). **여교사의 직무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례(2006).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청년기 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37-51.
- Coverman, S.(1989). Role overload, role conflict, and stress: Addressing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 demands. *Social Forces*, 67(4), 965-982.
- Diener, E.(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George, L. K., & Gwyther, L. P.(1986) Caregiver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t*, 26, 253-259.
- Hoyert, D. L., & Seltzer, M. M.(1992) Factors related to the well-being and life activities of family caregivers. *Family Relations*, 41, 74-81.
- Marks, N. F.(1995) Mid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9, 5-28.
- McCubbin, H. I. & Dahl, B. B(1986). *Coping with change stress, in marriage and family-individuals and life cycles*. John Wiley and Sons, 373-394
- Moen, P., Robinson, J., & Dempster-McClain, D.(1995) Caregiving and women's well-being: A life course approac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6, 259-273.
- Walker, R, Bubolz, M. H., & Lee, M. S.(1991). Contribution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o quality of family life of mid-life women and men. *Proceedings of 1991 conference workshop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 - Family economic well-being the next century challenges, changes, continuity, 167-179.
- www.kosis.kr(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국문요약>

교직이 점차 여성화됨에 따라 기혼 여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반면 여교사 자신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교사를 개인 및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심리적 복지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기혼 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정도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심리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 소재 초등학교 재직중인 기혼여교사 37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수준 경향은 전체영역은 3.32(5점 척도)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생활만족도는 3.82로 높게, 우울은 2.64로서 낮게 나타났다. 2) 기혼여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심리적 복지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 결혼상태, 주관적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 수준에 대한 배경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주관적 생활수준, 가족관계·심리정서적 건강성, 주관적 행복도로 나타났으며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혼여교사의 심리적 복지수준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은 교사가 건강한 청소년교육 및 지도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교사연수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논문접수일자: 2007년 10월 23일, 논문심사일자: 2007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7일